

산불 진화차량 투입 가뭄 해소 총력전

✎ 김주현 | ☎ 승인 2025.07.10

고성군 10일 긴급 가뭄대책회의 열어
'심각' 단계 진입 농업재해상황실 운영



▲ 고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긴급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살수차 등을 동원해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곳의 해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성군이 연인 계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이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 가뭄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군은 전철수 부군수 주재로 10일 오전 11시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국·실과·소장, 읍·면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마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뭄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가뭄 대비 사전대책 수립 △읍·면별 건의사항 청취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최근의 가뭄 현황과 대응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

적인 물관리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부서 간 협업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읍·면별 가뭄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가동 가능한 양수 장비를 총동원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나서는 동시에 산불 진화 차량도 투입해 가뭄 극복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은 향후 가뭄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예찰 활동과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가뭄 장기화 해소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김주현 joohyeon@kado.net